‘잇단 자살’… 빈곤위기가정 조기 발굴 지원 강화한다

광주시, 대응팀 꾸려 지역 내 위기가정 적극 찾아나서

복지부, 민·관 협력 복지 사각지대 한 달 간 일제조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와 각 구청도 위기 가정 대상자 조기 발굴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 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조사기간에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통·리·반장 등과 함께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단전·단수가구, 달방지역, 최근 복지급여 신청 후 탈락한 가구 등을 집중 조사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지원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특별관리해 급여결정의 정확성을 재검토하고 민간후원 연계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지난해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복지담당부서 간에 상호서비스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의 복지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원치 않는 이들은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상회보와 매달 20일 발송되는 4대 사회보험 공지서 등 각종 안내문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각 구청도 빈곤층 위기가정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시는 서울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선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발굴이 중요하다고 판단, 기존 신청주의 긴급복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단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용불량자·구급중지자·차상위 돌봄 가구 등 중에서 조기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통·반장 또는 음료 배달원, 가스검침원, 사회복지사, 의사·간호사·이웃주민 등 위기 가정을 아는 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현장을 방문해 위기가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와 동구도 지난 2일부터 지역 내 위기 가정 조기발굴을 위한 대응팀을 꾸린 뒤 적극적인 사례발굴 찾기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빈곤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 신속하게 지원해 다시는 서울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어려운 위기 가정 등을 발견하면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특별·광역단체 긴급복지 추진 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다.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 지난해 긴급복지 추진 실적은 9286건, 46억100만 원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근 서울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부를 비롯한 각 광역·기초단체들이 위기 가정 조기 발굴을 위한 대응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 8년째 교복비용 지원

단체·주민 성금… 328명 수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 일곡동 주민센터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8년째 교복비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일곡동 주민센터는 이날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67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1340만 원의 교복비를 전달했다. 이번 교복비는 살레시오중학교 학생회와 일곡동 자생단체협의회, 일곡두레마을주민협의회 등 11개 단체 및 주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졌다.

사랑의 교복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8년째를 맞고 있다. 그간 모은 성금액은 4400만 원. 교복비를 받은 수혜자만도 329명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새 교복을 입고 새 학기를 맞은 중·고교생들이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잘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계발, 지역 전체에 사랑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 ‘드림스타트 사업’ 전 주민센터로 확대운영

저소득층 위기아동 통합지원서비스

광주시 동구(청장 노희용)는 지난 2일부터 저소득층 위기아동 통합지원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기존 11개 동(洞) 주민센터에서 13개 동 주민센터 전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확대 시행되면서 혜택 대상자는 495명에서 515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구는 지난달 한 달 간 확대 운영되는 동 주민센터에 거주하는 신규 아동들에 대한 거주지를 직접 방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진행했었다.

구는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세 부문에 걸쳐 각 대상 어린이들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또 학교 및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최대한 활용, 아동과 가족들이 제때 통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운영키로 했다”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받은 아동들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아동보호기관 즉시 개입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종합대책 확정

9월 말부터 시행… 가해자 처벌도 대폭 강화

오는 9월 말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조사하게 된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일명 서현이 사건)처럼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각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각 구청 드림 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활용해 가정 내 학대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가정해체, 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시의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투자기회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임대문의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1층 의류매장/금융기관/커피숍 핸드폰매장/편의점/약국 331.38m² / 76.42m²
2층 의류매장/금융업소 커피숍/휴게음식점 593.17m² (구179.43평) 분할가능
3층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m² (구352.38평)
4층 사무실 / 학원 365.58m² 216.87m² 582.45m²
5층 아스터어학원 유투엠 수학학원 임대확정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여성가족부 인정 2014-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2014년 3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현장학습과 함께하는 「실용토종약초」 수강생 모집
■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 강 사: 김 성 희 010-9604-5377
■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태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채취와 가공 방법
- 현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광신대학교 생활한방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